

說 叢

臺灣의 向方

—조영환編「臺灣의 將來」를 紹介하면서—

閱 斗 基

1

臺灣은 어디로 갈 것인가? 中共에 叛亂이 일어나 國民政府軍이 本土收復을 하여 하나의 中國이 될 것인가? 現狀維持가 오래동안 계속될 것인가? 中共이 武力占領할 것인가? 臺灣의 執權層이 中國의 分裂을 固定시키지 않기 위해 北京當局과 協商할 것인가? 아니면 臺灣에 「中華臺灣共和國」을 設立宣布할 것인가? 또는 國際情勢의 급작스런 變動이 일어나 臺灣人(本土에서 戰後진너온 사람들 아닌 臺灣에 籍貫을 가진 定住人)들이 自決權에 인정되어 臺灣共和國이 成立될 것인가? 1971年 2月 25日, 닉슨美國大統領이 처음으로 「中華人民共和國」이란 用語를 쓴 이래 시작된 급작스런 中共·美和解는 다음해 2月 27日의 이른바 上海共同聲明에서 頂點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臺灣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물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臺灣에 位置한 中華民國 即 國民政府가 國際社會에서나 華僑社會에서 中國大陸人民까지를 代表하는 正統政府로 認定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韓國戰爭勃發에 연유한 美國의 臺灣防衛決心이 背景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곧 美國과 中共이 韓半島에서 敵對關係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

는 것이었다. 그런데 上海共同聲明은 이 構成關係를 깨뜨리고 만 것이었다. 「臺灣海峽의 兩便의 中國人은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 主張하는 것을 美國은 승인한다」는 上海共同聲明은 기막힌 文句의 장난으로 中華民國도 하나의 中國을 代表하는 양 해석할 수 있고 臺灣이 中共이 支配하는 中國의 一部라는 해석도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다. 그 성명의 文句의 해석은 文法이 아니라 힘으로 하도록 해 놓았는데 中共의 힘(國際的地位)은 날로 증대되가고 國府의 그것은 날로 시들해가고 있는 것이다.

美·中共接近, 國際聯合에서의 中國代表權의 變化라는 難局에 대응하기 위해 國民政府가 取한 정책은 臺灣問題가 中共과 國際間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潛在的인 變數를 保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72年 12月에 國民政府는 臺灣避難以來初유의 큰 政治構造改革을 斷行하였으니 國民代表大會와 立法院에의 補充選舉를 行하였고 의미깊은 改閣을 斷行하였고, 其他 省市의 人事改編作業을 벌린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改革의 主된 特色을 臺灣人 即 지금 臺灣에서 쓰는 用語로는 「本省籍」이 行政, 議政에 大舉進出했다는 데에 있었다. 蔣經國이 國務總理

(行政院長)가 된 세 內閣은 13名の 閣僚中 6名을 臺灣人으로 채웠고(前에는 最高가 三名) 최초로 臺灣人이 臺灣省政府主席에 任命된 것이다. 國民代表大會의 補充選舉結果는 87%가 臺灣人이었다. 國民政府로서는 難局의 打開을 臺灣人의 支持를 바탕으로 展開하려 한 것이니 이러한 難局打開方法으로서 臺灣人의 支持를 必要로 한다는 그 사실은 政權擔當者 即 本土에서 건너온 外省籍과 本省籍 사이에 메꾸어져야 할 큰 고랑이 파있음을 逆證하는 것이었다. 좀 고깝게 表現한다면 難局에 처하게 되니까 臺灣人의 支持가 必要하게 된 것이라 하고도 할 수 있다. 이 臺灣人의 存在, 即 臺灣에 사는 사람들 모두 中國人으로 간주하는 公式의인 立場과는 달리 그안에 特別考慮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臺灣獨立運動의 근거가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民政府의 改革政策의 動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國民政府側에서는 72년의 이 大改革이 臺灣人의 젊은 世代가 교육과 학식면에서 성장하여 公職擔當의 능력과 有望性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沈駐美大使의 發言) 말하고 있다.

2

以上에서 말해온바를 훑어보면 그것은 주로 國際政治上의 문제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도 筆者와 같은 中國史學徒가 이 臺灣問題에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은 臺灣問題에의 關心은 國際政治의 側面뿐 아니라 歷史研究的 側面에서도 없지않기 때문인 것이다. 中國歷史는 과거 많은 分裂과 그들 克服한 統一을 보아왔다. 그 분

裂이 統一로 指向되는 時期는 항상 重要한 歷史的變局을 隨伴하였었다. 이제 과거 文獻史料에서만 다루어오던 統一과 分裂이라는 問題가 現實로서 展開되고 있음으로, 이 現實에의 관심은 과거의 역사에서의 分裂과 統一의 展開原理같은 것을 —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即 中國史의 展開패턴에 대한 理解를 深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中國史의 傳統의 繼承에 관한 關心이다. 大陸에서는 지난날의 文化傳統에 대하여 큰 修正을 가하고있는 터이지만 臺灣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保存의 立場에서 간직해 나가려 하고 있다. 漢字에 대한 태도, 儒敎文化 등에 대한 態도의 차이가 그 典型的의 例이다. 이런 傳統의 繼承方法은 政治的變化에 크게 依存하게 되는데 이러한 傳統繼承의 方法에 對한 關心에는, 萬若 臺灣이 獨自의 存立을 앞으로 繼續할 수 있는 경우 — 臺灣獨立에 依해서거나 아니면 「中華臺灣共和國」의 形態로 — 그 文化가 어떤 성질의 것이 될 것이냐는 觀測에의 興味도 包含된다. 또 하나의 보다 순수한 싱가포르國이 形成된다면 그것과 中國歷史研究者들이 研究하고있는 中國歷史의 展開과정의 이해와는 어떻게 관련지어야 할 것인가?

이같은 學問的 立場과 관련된 關心은, 筆者自身の 지난날의 臺灣生活에서 느낀 臺灣人들의 상당히 강한 個別性的의 主張과 그것을 否定 克服하려는 또다른 傾向의 存在에 대한 個人的 關心과도 얽혀 平素 臺灣問題에 대한 적절한 案內書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왔었는데 이번에 그같은 소망

을 어느정도 充足시켜줄 책을 구할수 있게되었다. 美國 아리조나大學의 曹瑛煥教授가 所長으로 있는 아시아研究센터에서 再作年月에 刊行한 「台灣의 將來?」가 그것이다. 曹教授가 編한 이책은 1973年 2月 2日과 3日 兩日에 걸쳐 거행된 심포지움에 發表된 論文과 그것들을 바탕으로한 討論記錄을 한데 묶은것이다. 이러한 심포지움은 編者인 曹教授가 導論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對象으로 보나 그 時期로 보나 처음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 構成의 대층을 보면 먼저 編者曹博士의 導論이 있어 문제에 대한 視角, 發表論文의 要旨 등을 整理해나가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역시 臺灣獨立運動의 主張을 強하게 의식한 恣意가 보인다.

第四編에 收錄된 臺灣獨立運動(또는 臺灣에서나리스트運動)의 지지자인 다그라스·맨델(위스콘신大學 政治學教授)의 「危機에 처한 臺灣에서나리즘」에서 보다라도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臺灣獨立運動 그 自體는 그리 強力한것이 못되지만 그래도 理論的, 感情的인 次元에서 많이 學論되고 있는 것은 비록 매우 受動的이기는 하나 臺灣人들의 個別意識의 큰 흐름이 있기에 문이라는 立場에서이다. 이 심포지움에는 「맨델」교수를 초청했을뿐 아니라, 臺灣獨立運動의 精神의 指導者로 評價되는(p. 350) 彭明敏教授(前臺灣大 교수, 現 라이트 주립대학교 교수)도 討論에 참가시키고 있다. 勿論 中華民國駐美大使도 초청하여 말하게 할것을 잊지 않았고 소련의 유엔 代表團의 一員인 「브라디밀·포포프」의 見解도 수록하고 있고 日本大使館側의 글도 수록하고 있다. 더욱 흥미있는것은 미시간州立大學의 리教授가 1973年 北京에

서 周恩來와 만나 中共의 對臺灣政策에 대해 들은바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다. 그 밖에 臺灣의 政治의 展開, 臺灣서의 學生 운동에의 전망, 臺灣地位의 國際法上論議, 貿易의 전망, 華僑內의 親國府, 親共의 態度등이 다루어 지고 있다. 여러 論文들이 모두가 脚注가 달린 글들임으로 提起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따라 보다 깊게 파나갈수도 있다.

3

導論에 보인 臺灣關係略年表에 보면 西紀 605년에 中國人航海者 何蠻이 臺灣을 隋王朝의 領有로 主張하였다고 나와있는데 中國과 臺灣의 關係를 좀더 자세히 상고해보면 隋代의 記錄에는 臺灣이 流求로 보이고 있다. 隋에서는 607年 608년에 朱寬陳稜을 보내 流求를 征服하여 國王 「渴刺兜」를 목베고 數千名의 백성을 俘虜로 잡아 왔다고 「隋書」에 보인다. 이것이 아마도 臺灣이 文獻에 明白히 나오는 最初의 것이고 中國과의 最初의 交際記錄일 것이다. 國王을 목베었다했으니 이미 原住民 政治의 組織이 있었음을 알겠는데 後日 中國人이나 和蘭人이 이 섬에 進出하여 만나게 된 原住民은 지금 臺灣에서 山胞로 불리는 南方國系統의 種族이었을 것이다. 隋以來로 中國인에게 알려진 臺灣島에 中國人이 많이 進出하게 된 것은 明代(14C~17C)부터일 것이다. 中國人들로서 臺灣에 移住해온 사람들은 對岸의 福建省 사람이 제일 많고 다음이 廣東省出身 들이다. 이들의 後孫이 오늘날의 臺灣人들인 것이다. 그러나 臺灣에 最初로 組織的統治를 施行한것은 中國人이 아니라 和蘭人들이었다. 1624年 그들이 지금의 臺灣南

部の 安平에 上陸하여 그곳에 살던 原住民 「다이오완」族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부름으로서 「다이완」의 이름이 시작됐거니와 그들은 1662年 中國人의 武裝集團인 鄭成功에게 쫓겨날때까지 인도내서어의 東印度會社관할하에 近 40年동안 통치하였다. 그들은 이통치기간중 土語로된 『마태복음』 土語辭典 등을 만들었을뿐 아니라 土語를 로마자로 表記하는것을 가르키는 學校도 세우고 있다. 로마자로 表記된 土地賣買文券 등이 現在 傳하는것이 적지 않거니와 (그말들은 小數土族의 말들이었음으로 그 土族이 消滅함으로서 死語가 되었다.) 그 文券들은 로마字(土語)와 漢文 二種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로마字表記는 和蘭이 쫓겨나간 훨씬뒤인 18世紀中葉에까지 使用되었는데 늦은것으로는 清朝中期 (1813年) 作成의 文券도 있다.

이들 和蘭人을 驅逐한 鄭成功은 海賊出身으로서 明末에 淸에 대항하여 明을 保衛하는 편에 加擔하여 싸웠으니 鄭氏三代가 臺灣을 和蘭에 이어 組織의으로 統治한 21年間, 臺灣은 철저하게 中國化되었다. 孔子廟, 明倫堂을 세우고 小規模의 科擧를 行하고 그外 製糖, 製鹽業을 일으켰다. 여기서 注目되는것은 鄭氏가 臺灣에 定着하면서, 淸의 侵入을 피하는 高級知識人들이 本土에서 相當數 따라 들어왔었던 일이나 中國의 하나의 邊境文化가 이리하여 成長하기 시작한 것이다. 鄭氏一家가 侵入者인 淸의 打倒와 明의 復興을 내걸어 한때는 大陸의 沿海地方을 장악하였고 南京에까지 공격을 加한 일이 있었으나 結局, 明復興도 못보고 強力한 淸의 武力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1683年의 일이었다. 鄭成功은 臺灣의 中國化를

創始한 사람으로서 오늘날도 臺灣에서 높이 기리고 있어 大學이름에 軍事訓練所의 이름에 「成功」이 붙고 있다. 한편 이 鄭氏政權의 故事는 오늘날의 國民政府의 성격이나 장래를 論하는 사람들이 곧잘 一次의 比較대상으로 삼는것이기도 하다.

1885年에 淸이 臺灣에 省을 設置할때까지 臺灣은 福建省에 所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福建省과 廣東省서의 移住人이 늘어나고 天地會라는 秘密結社가 領導하는 規模 큰 叛亂이 展開되어 遣征軍의 잔학한 討伐을 받기도 했다. 1874年 淸과 日本은 이른바 臺灣事件으로 하여 對決하게 되는데 臺灣의 山地居住蠻族이 琉球人漁夫를 殺害한데 대한 抗議로서 日本이 臺灣에 出兵하여 山地族을 討伐하고 그에 所要된 經費를 淸이 물어야 했던 事件이다. 結果的으로는 臺灣의 主權所在를 明白히는 할수있었지만 이사건의 始初는 近代의 主權概念에 익숙지 못한 淸當局者들의 애매한 태도에 연유한 것이었다. 臺灣의 北部淡水가 開港場으로 指定된것은 1860年의 일이어니와 1884~5年의 淸佛戰爭때는 佛蘭西海軍이 台灣北쪽의 基隆을 攻擊하고 澎湖島를 占領하였다. 和蘭人의 占據以來, 臺灣은 이렇듯 中國, 西洋, 日本등의 利害關係가 얽혔는데 19世紀末葉에 이르러 臺灣을 둘러싼 國際關係가 重要性을 더하게 되자 淸朝는 1885年에 臺灣을 獨立된 行政單位인 省으로 승격시켰으나 10年만인 1895年에 淸日戰爭에 敗하여 臺灣을 日本에게 割讓해 버리고 말았다. 이때 많은 臺灣人들이 淸朝의 措置에 抗議하는 한편 日本의 接收를 反對하기 위하여 臺灣民主國을 宣布하였다. 淸의 行政

長官을 總統으로한 急造의 아시아에서의 最初의 共和國은 곧 뒤미처 들어온 日本의 接收軍을 맞아 5個月가량밖에 지탱못했지만 割讓과 獨立은 後日 臺灣人들로 하여금 中國側에대한 臺灣人들의 個別意識을 主張할때 重要한 근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 臺灣民主國은 비록 淸政府가 任命한 官吏들이 首腦部를 이루고 있었지만 地方領導者들과 民衆들의 강한 支援를 받고 있었다. 이리하여 日本의 臺灣接收가 臺灣人과의 戰鬥을 통해서 「占領」이 이루어졌다는 事實이 形成된 것이다. 5월 25日 宣布된 臺灣民主國이 臺灣의 함락으로 소멸되는 10월 21일까지 日本軍은 近 5千餘名의 戰死者를 내야했다.

그로부터 1945년까지 50年동안 日本의 植民統治가 繼續됐다. 1945年의 日本의 敗戰이 臺灣을 中華民國으로 다시 귀속되게 되었는데 그 근거는 日本이 中國으로부터 「홍저넌」 臺灣 滿洲등을 中華民國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1943年 12月의 카이로 宣言이었다.

4

카이로宣言은 1945年 7月 26日의 포즈담宣言으로 다시 확인되어 臺灣이 日本領土아님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두 宣言에 근거하여 1951年의 샌프란시스코 講和會議에서 日本은 臺灣과 澎湖島에 대한 모든 권리, 요구, 地位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臺灣의 國際法의地位가 확정되었느냐? 에는 論難이 있는 모양이다. 本書에 수록된 「누가 臺灣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쟁론주와 라이스만(前

者는 에일大法大의 助教이고 後者는 副教授)의 글에 보면, 카이로·포즈담宣言은 어디까지나 의사발표의 宣言일뿐 구속력을 가진 法的文書일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1943년에 카이로宣言이 나온뒤에도 日本은 1945년까지 臺灣을 領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講和會議에서도, 1952年 4月의 中華民國과 日本의 講和條約에도 臺灣이 日本에 屬하지 않는 것은 확인됐으나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筆者들에 의하면 이점은 美國務長官 덜레스나 中共을 승인한 佛蘭西의 뽕피두 國務總理(當時), 英國의 國際聯合代表들에 의해서도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中華民國 또는 中共의 臺灣領有權을 否認하고자 하는 臺灣獨立運動者들의 重要한 活動根據가 되어왔다. (中華民國側의 主張은 現駐美大使의 연설에 보이고 있는바 中華民國과 日本은 1952年의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서 臺灣이 日本에 귀속하게 된 條約自體를 무효화하였으며, 日本은 포즈담宣言을 수락한다고 宣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法律理論이 어찌되었던 二次大戰後 中華民國軍은 臺灣을 接收하기 위해 進駐하였고 1949年以後에는 中華民國의 中央政府의 所在地가 되었다. 그런데 臺灣(地方)인과 本土에서 들어온 中國人과의 사이에 심각한 兇惡을 가져온 사건이 1947年 2月에 일어났다. 2.28事件이라 불리는 臺灣人的 全省的 暴動은 接收軍이 한 煙草密賣老婆를 가혹하게 처리한데 촉발된 것인데 些小한 시비가 全島內의 本土人襲擊과 本土進駐軍의 報復的 鎮壓을 불러일

으렸다. 臺灣獨立運動者들의 主張에 따르면 二萬名의 臺灣人指導者가 이데 학살되었다 한다. 이 사건은 鎮壓당한 臺灣人에게는 뿌리깊은 상처로 남아서 臺灣人の 個別意識形成의 근거가 되고 있거니와 이 叛亂事件은 50년에 걸친 日本統治가 크게 作用하였음을 생각할수 있다. 50년이란 오랜동안 中國本土와 격리되어 別個의 생활환경을 가졌던 臺灣人들은 日本으로부터 臺灣을 接收하려는 사람들이 占領者로 君臨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아니라 오랜 內戰과 抗日戰鬪에 지친 接收軍의 紀律, 裝備를 日本軍의 그것과 비교하여 失望을 느꼈던 것이다(本書 p.146). 臺灣人들의 日本의인것에 대한 傾斜는 臺灣訪問者들이 요사이에도 곧잘 관찰할수있는 바이지만 이는 本土人들에 대한 反感의 反射로서의 감정과, 본래 臺灣이 中國文化의 邊境地帶이었음으로서 中國文化의 높은수준에 스스로를 一致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文化的弱小認識이 가져온 日本文化에의 친근성이 複合된 때문이라할 것이다. 不幸한 충돌사건이후 얼마안되어 臺灣은 中國의 邊境의 一省이 아니라 中央政府의 所在地가 됨으로써 많은 本土人이 피난오고 그들이 中央政府 및 省政府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臺灣人들은 政治的으로 소외되어야 했고 公職擔當도 本土人들에게 거의 맡겨야 했다. 國民政府의 中央政府가 本土에 있었던들 事態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비록 2.28사건을 겪었다하더라도 臺灣人들의 個別性인식은 그렇게 뚜렷해 지지지는 않았을것이기 때문이다. 中華民國의 統治理念과 統治方式自體에 대한 숨은 批判意識도 臺灣人의 個別性인식에 약간

은 공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中華民國의 國民政府立場에서 보면 臺灣人은 人種의(福建者, 廣東省)으로도 中國人이요 言語도 中國語의 한 方言이요 歷史的으로도 中國의 一部를 구성하였다. 臺灣人이 公職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것은 臺灣의 特殊事情때문이니 接收當局은 臺灣行政을 中國標準語를 日本語 대신 公用語化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50년 동안의 日本 占領때문에 中國人이라는 一體感이 적지 아니 약해진 同胞들을 中國人化하지않고서 어떻게 公職에 참여시킬 것인가?

사실 國民政府는 臺灣人들에게 中國人으로서의 一體感을 주기위해 크게 애썼는데 그 결과 젊은世代가운데는 스스로를 자랑스런 中國人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것이다. (1968年 筆者가 臺灣에 있을무렵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늙은이들의 標準語연설大會를 放送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臺灣人이라는 個別性도 中國人의 一部로서의 個別性以上の 것이 아닐것이다. 더구나 國民政府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臺灣人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 생활을 享有하고 있다(本書에 수록된 첸과 라이스만의 글이 오늘날의 臺灣의 경제 발전을 二次大戰前의 日本人統治가 남긴 工業의 基盤과 美國의 戰後援助탓으로만 돌리는것은 公正한 論斷이라 할수있다. 첸과 라이스만은 심지어 1939년 당시의 臺灣의 對外貿易의 一人當量이 당시의 中國의 그것보다 39배나 높다는것을 강조하는(pp. 173~174) 非歷史的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멘델교수의 「危機에 처한 臺灣獨立運

動」이란 論文을 臺灣獨立운동의 간단한 概觀을 다룬 글인데 日本과 美國을 근거로 하는 이운동이 별로 활발하지 못한것을 이 글로 알수있다. 통일적인 조직도 없고 강력한 지원자도 없다. 그러나 맨델교수는 말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모든 臺灣人은 獨立운동자들의 基本的인 목표에 동조하고 있음을 「믿는다」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年齡이나 社會的地位에 상관 없다」고(p.149).

獨立運動의 주장에 대해서는 彭明敏 교수의 發表主題에 대한 論評會席上에서의 發言에 端的으로 表明되었다. 臺灣獨立運動의 지도자로서 投獄되어 軟禁되어 있다가 1970年 不可思議한 方法으로(아마도 外部의 도움으로) 臺灣을 脫出하는데 성공한 彭교수는 獨立運動의 焦點은 獨立된 政治的單位를 갖느냐의 與否가 아니라 臺灣의 將來에 대한 臺灣에 사는 住民(臺灣人만이 아닌)의 發言權이 존중되어야 한다는것임을 말하고 臺灣의 내서나리즘은 人種, 言語의 關係보다 독특한 歷史的경험과 共通된 소망과 共通된 利害觀을 바탕으로 하는 自治欲(feeling of communality)을 근거로 하고있다고 하였다(p.299). 彭교수에 依하면 그가운데서도 특히, 누구든지 싸움에 이기면 住民의 의사와 상관없이 諍안에 들어와 主人노릇하곤 하였던 과거의 국제정치의 權力政治에 대한 원한이라는 역사적 經驗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리조나大學의 日本史교수인 카안教授는 論評會에서나 本書에 수록된 綜合書評(맨델著, 臺灣民族主義의 政治過程 彭明敏著, 自由의맛)에서 臺灣인이

韓國人의 獨立運動에 비하여 용기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있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비교할수있는 次元인가에 대해서는 논함이 없다.)

臺灣獨立運動이 어느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고 더욱이 日本에서의 臺獨운동 領導자들이 國民政府의 招撫에 응하여 歸國하여 배우를 받는 事例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明白히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웨이웅교수(맨피스 주립 대학교)가 지적한 것처럼(p.31) 臺獨의 存在가 臺灣內의 臺灣人指導자에게 政治的幸運을 갖다주고 있다는 것이니 앞에 말한바와같이 國民政府의 政府構造의 大幅改造에 있어 臺灣인이 크게 기여된것이 그 實例이다. 이러한 「幸運」은 臺獨運動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일로서, 비록 臺獨運動이 臺灣의 장래에 重要的한 變數노릇을 할수없을지라도(p.31) 彭明敏氏가 臺獨운동을 氷山の一角에 不過하고 大多數臺灣住民의 政治的志向은 바다밑에 깔려있다고 한 그러한현상(p.229)에 對應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5

臺灣問題의 重要的한 당사자층에 中共을 빼놓을수가 없다. 中共이 臺灣의 「해방」을 외치고 있는것은 勿論 臺灣을 中國의 一部로 보기때문이거나 中共側의 態度에 대해서는 미시간주립大學의 리·조셉교수가 1972年 8日 中共을 방문하여 周恩來總理와 會見한 內容을 보고하고 있다. 周恩來에 따르면 中共은 臺灣을 武力「解放」시킬생각은 없고 平和的으로 「해방」시

게 有用하고 意義있는 책이다. 本書를 대충 읽고 나서 結論으로 생각되는 것은 만약 國民政府가 經濟的發展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臺灣問題의 성격은 락이나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과 臺灣에 살고있는 民衆의 存在는 비록 그들이 어떤 적극적인 示표를 안고(혹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民衆의 문제를 臺灣人 對本土人이라는 次元, 즉 臺灣獨立運動의 次元에서만 문제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계를 떠난 多數者被統治者로서의 民衆의 次元에서도 문제되어야 한다. 臺灣에서는 強權의 權威主義의 一黨政治가 오래 行어져왔음으로 民衆은 도대체 「政治」에 대하여 관심을 안갖도록 길들여져 있다. 이는 臺灣의 신문들을 읽어보거나 臺灣人 在住들과 對話해온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이다. 간혹 「政治」에 관심을 보이던 野黨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自由中國誌의 刊行者 雷震처럼 곤욕을 당하고 만다. 政治뿐 아니라 自由主義의 氣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數年前 臺灣의 文星書店을 中心機關으로한 自由主義운동이 일어났으나 그것은 곧 탄압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기운의 싹이 절멸된 것은 아니다. 臺灣學生 중 海外留學을 한 사람의 반가량이 어떤 형태로나 臺灣獨立運動과 연관을 맺게 된다는 사실(p. 53) 그리고 얼마 전 臺灣大學의 「民主主義研究會」사건 등은 多數者인 民衆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多數者의 支配로서의 民主主義的 欲求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經濟的 生活의 向上과 그로인한 社會構造의

變化는 그러한 가능성을 促發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民主主義나 自由主義의 欲求는 혹은(前년에 탄압된 自由主義운동처럼) 舊世代의 공격으로 나타나고 또는 (多數支配의 원리에 따라) 前述한 것같은 「多數者」인 臺灣人의 個別意識強化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主로 臺灣人의 個別意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한 臺灣獨立運動을 中心으로하여 本書를 소개해왔지만 臺灣의 將來는 이런 관점에서만 論及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보다 광범위한 時空에서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臺灣問題를 보다 넓은 視野에서 接近하기위해서 例示로서 本書의 總目次를 소개하는 것도 그럼으로 무의미한 일은 아닌 듯 싶다.

導 論 (조영환)

1 編 臺灣의 國內政治

1 章 臺灣에 있어서의 政治的 發展(레이웅)

2 章 臺灣의 社會的 政治的 地方 狀況과 臺灣의 將來(아더·러만)

3 章 臺灣에서의 學生運動의 展望(셀든 아펠튼)

2 編 臺灣과 大陸——共存이나 統合이나?

4 章 臺灣에 대한 北京側見解——周恩來와의 會見(티·조셀)

5 章 臺灣의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沈 中華民國駐美大使)

6 章 南洋華僑——中共과 國民政府의 사이에서(로바트·틸만)

3 編 臺灣과 列強

- 7章 臺灣, 中國 그리고 世界(美國務省 레오·모자)
- 8章 臺灣은 中國의 一部인가?(실제發表는 〈臺灣·中國의 一部〉로 하였다.) 쓰런 外務部 및 쓰런 駐유엔 代表團 블라디미르·포포프)
- 9章 對中 國交正常化後의 日·國民 政府關係(駐美 日本 大使館 오카자키 키히 사히고)
- 4編 10章 臺灣의 무역 전망(美國 商工部 아더 도온하임)
- 11章 臺灣의 人口, 技術, 資源—— 그 政治적 의미(로바트·노드)
- 12章 위기에 처한 臺灣내서 나라리즘(다 그라스 덴넬)
- 5編 13章 臺灣問題의 展望(린제이卿)
- 14章 누가 臺灣을 차지할 것인가? (鍾 롱추·엠·라이스만)
- 6編 15章 심포지움과 論評會 記錄
- 7編 附 錄
- 綜合書評(臺灣問題에 관한 두 著書의) (윈스턴 카안)
- 臺灣의 地理的 展望(도날드·막다가드)
- 日文版序文(英文)(石川忠雄)
- 參加者紹介
- (Taiwan's Future?)
-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Dr. Yung-Hwan Jo
- Published by Union Research Institute for Center for Asian Studies Arizona State University May 1974.)